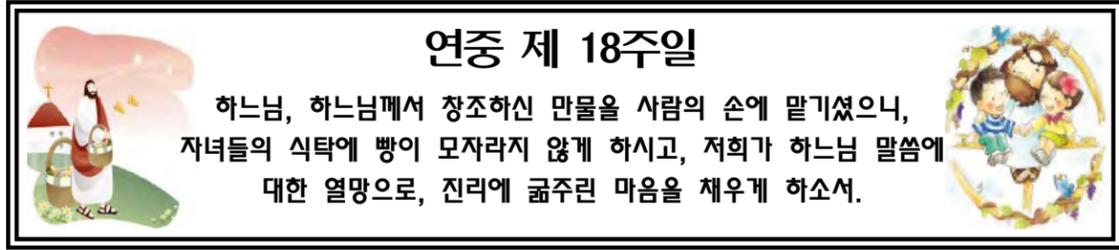


공동체 소식



연중 제 18주일

하느님,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사람의 손에 맡기셨으니, 자녀들의 식탁에 빵이 모자라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하느님 말씀에 대한 열망으로, 진리에 굶주린 마음을 채우게 하소서.

8월 기도지향

- 이내익 베드로, 김은희 가정
• 현주용 디모테오, 김진미 안젤라 가정

신심미사

- 예수성심미사 : 8/7(금) 오전 10시
- 성모성심미사 : 8/8(토) 오전 10시(묵주기도와 함께)
신심미사는 '회관'에서 봉헌하며, 화요일과 목요일 미사는 없습니다..

성모승천대축일

- 일시 : 8/14(금) 오후 7:30
- 장소 : 스톤 채플

환영

이번 주, 애틀란타 버밍햄 본당 조중희 가브리엘 신부님과 로마 유학 중인 최승환 요셉 신부님이 우리 공동체를 방문하십니다. 환영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송별미사

그동안 캔사스 한인공동체를 위해 수고해 주신 주임신부님께서 3년의 임기를 마치고 청주교구로 복귀하십니다. 아쉬운 마음으로 신부님을 보내드리며, 8월 16일(일) 11시 송별미사를 봉헌하고자 합니다.

기타

- 지난 주일, 어르신들과 친교의 식사를 마련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음식을 준비해 주신 자매님들과 자리를 빛내주신 공동체 어르신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다음 주일 중심미사 후, 평협회의 있습니다.
- 올해도 캔사스시티 한인회 주최, 광복절기념 소프트볼 대회(8/15, 토)가 열립니다. 작년의 우승에 힘입어 올해도 열심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정수한 베드로 (913) 707-8141

전례 성가

Table with 4 columns: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Values: 25, 217, 156/178, 431

주일미사 복사

Table with 3 columns: 시종 복사, 향 복사. Rows for 금주 and 차주.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Table with 3 columns: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Rows for 금주 and 차주.

애찬 봉사자

Table with 2 columns: 금주, 차주. Values: 김시연, 신혜경, 김말자; 백문주, 최은미, 박옥희

헌금 봉사자

Table with 2 columns: 금주, 차주. Values: 정수한 베드로, 김대성 요한; 백문주 엘리사벳, 고영방 스테파노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Table with 4 columns: 영성체, 헌금, 교무금. Values: 7/26, 95명, 410불, 1,050불. Includes a note about the collection.

감사헌금 : 현주용 디모테오 형제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장 홍순의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회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18주일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청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우리를 생명의 빵으로 기르십니다. 오늘도 그 양식의 힘으로 아버지 모습을 닮은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간청하며, 주님의 식탁에서 그분을 받아 모시면서 찬미합시다.

그림 묵상

하느님의 빵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빵을 내려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듯,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통해 우리에게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생명의 빵을 주십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징표를 감히 느껴보려 합니다.

정미연 소화대레사

제 1 독서 :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16,2-4.12-15

<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양식을 비처럼 내려 주리라. >



화답송:

주 님 께 서 하 늘 의 빵 을 그 들 에 게 주 시 니 라

- 이미 우리 들어서 아는 일들을 조상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일들을 미래의 세대에게 전하려 하노라. 주님의 영광을 그분의 능하심을 전하려 하노라. ◎
○ 그래도 그분께서는 위에서 구름을 호령하여 하늘의 문들을 여시니라. 그들이 먹을 만나를 비처럼 내리시고 하늘의 빵을 그들에게 주시니라. ◎
○ 강한 자의 빵으로 인간을 먹이시고 배부르도록 음식을 내리시니라. 하느님께서 그들을 당신 성지로 오른손이 얻으신 그 산으로 이끄시니라. ◎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4,17.20-24

< 여러분은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합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복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24-35

<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



세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집트의 탈출과 광야에서의 체험은 잊지 못할 사건이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면, 구약에서 탈출은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의 여정은 후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좋고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실상 탈출기를 펴서 읽어보면 조금 의아한 생각마저 듭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벌어진 일들을 생각하면 단순히 행복했던 시간만은 분명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도 그 자취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 불만을 터뜨립니다. “당신들은 이 무리를 모조리 굶겨 죽이려고,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왔소?” 이 말에는 불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차라리 자유가 없는 종살이를 하더라도 배를 불리는 것을 더 원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녁 어스름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양식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이 양식을 우리는 ‘만나’라고 부릅니다.

광야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순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어려움을 마주할 때마다 이들은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대에 이 시간을 가장 행복했던 때로 여기는 것은 하느님께서 항상 함께하고 있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불평하는 이들에게 하느님께서 항상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셨고, 그런 모습으로 광야의 시간 동안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일부 군중들은 빵을 많이 하신 표징을 체험했지만 다시 묻습니다.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

렵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들의 질문은 탈출기의 그것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표징과 기적을 통해서만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빵이다”라고 답하십니다. 이 말에 군중들은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라고 청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이해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광야에서의 하느님의 모습이나 복음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광야에서의 만나가 인간에게 필요한 양식을 제공해 주는 것이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믿는 이들에게 선사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유보다 배고픔을 달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군중 역시 일상에 필요한 물질적인 욕구를 채우고자 합니다.

요즘도 어떤 사람들은 기적이나 표징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느님에 대한 체험입니다. 비록 감각적으로 강렬하지는 않더라도 이 체험을 통해 우리의 일상은 조금씩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에페소서의 말씀처럼 ‘헛된 마음’을 버리고 ‘새 인간’이 되는 것. 이것이 어쩌면 가장 큰 기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감각적인 것들을 추구합니다. 영적인 것이나 진리와 같은 이야기는 오히려 진부하게 들리기까지 합니다. 물론 필요한 것을 청하고 받는 것도 우리 신앙의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인 것은 아닙니다. 당장 내게 주어지는 만족을 생각하기보다 그것을 주시는 분을 먼저 체험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저 먼 산 어딘가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 가톨릭대학 허규 신부 -



주춧돌

제 3 장 조상을 기억함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조상들의 죄악을 삼 대 사 대 자손들에게까지 갚는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푼다(탈출 20, 5-6).

【주석】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 탈출 34,7에서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풀고 죄악과 악행과 잘못을 용서한다. 그러나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고 조상들의 죄악을 아들 손자들을 거쳐 삼 대 사 대까지 벌한다.”라고 되어 있다.

천대에 이르기까지 : 히브리말 본문에는 본디 “대”에 해당하는 말이 없기 때문에, “수천(명)에 이르기까지”로 이해하기도 한다(주석 성경, 229).

자애를 베푼다 : 조상들의 잘못이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일반적인 체험이다. 본문은 이에 대한 근거를 대지 않지만 크나큰 희망을 보여준다. 착한 일은 대단히 긴 세월동안 복을 가져다주는 반면에 악행은 몇 세대에만 불행을 가져다준다는 것이다(상동).

【설명】

▶ 하느님께서서는 조상들을 통하여 귀한 생명과 좋은 장점들을 오늘의 나에게 전달해 주셨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조상들의 생명의 고리가 이어졌다. 그리고 그분들의 남모르는 노고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다. 조상을 기억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드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어른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을 존경해야 한다. 너희는 하느님을 경외해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레위 19,32).

▶ 온 회중이 자기 조상들의 하느님이신 주님을 찬미하며, 주님과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였다(1역대 29,20).

【교회의 가르침】

▶ 세상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느님, 오늘 한가위를 맞아, 세상을 떠난 조상과 부모 형제 친척들을 기억하며 비오니, 그들이 모두 천상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저희도 그들의 음덕으로 복을 누리며, 하느님의 뜻을 더욱더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매일미사 2012년 9월 30일 한가위 본기도).

【어록】

- ▶ 연옥 영혼을 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물론 미사이다(성 토마스 데 아퀴노).
- ▶ 연옥 영혼을 위하여 미사가 봉헌되면 그동안 그들은 조금도 고통을 받지 않는다(성 예로니모).
- ▶ 어떤 연옥 영혼을 위하여 미사가 봉헌되면 그동안은 그 영혼의 괴로움은 아주 중지되든가 또는 적어도 덜

- 신앙생활 보람, 청주교구, 2013 -